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엄마, 무서운 영화 좋아하세요?”
 “아니, 엄마 취향은 공포영화가 아니고 훈훈한 영화인데, 왜?”
 “그럼 맞아요, 나오는 배우가 훈훈해요. 영화 ‘파묘’ 같이 보러 갈까요?”
 “파묘?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함께 영화보자.”
 삼대가 한 영화를 보게 된 날, 우리는 목포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단골 식당으로 유명한 맛집에서 저녁을 먹고 ‘파묘’를 봤다.
 영화 ‘파묘’는 의뢰인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LA에 사는 ‘밀도 끝도 없는 부자’ 교포 집안에 대물림되는 기이한 병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 할아버지의 묘를 파묘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다. 최고의 풍수사, 대통령을 염하는 장의사, 신기 작렬하는 무속인들이 등장하는 오컬트 영화다.
 장재현 감독의 ‘파묘’는 무당의 주술영화

쇠말뚝

도 아니고, 묘를 잘못 건드려서 화를 입는 귀신영화도 아니었다. 섬뜩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었다. 임진왜란부터 침략한 일제가 친일파들의 정신에 박아놓은 쇠말뚝을 뽑아내는 상징적인 영화였다.
 주인공 풍수사 최민식의 극 중 이름이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상덕 선생이고, 김고은이 연기한 무당의 이름 역시 독립운동가 이화림 선생이다. 장재현 감독은 여자 주인공을 김구 선생이 이끄는 한인 애국단과 조선의용군으로 활약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작명했다. 게다가 매력적인 젊은 법사이도현의 극 중 이름은 한인 애국단 윤봉길 의사가 아닌가! 명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에 빠져서 이 연관성을 살펴보는 않았지만, 김상덕의 차 번호가 ‘0815’, 이화림의 차 번호는 ‘0001’, 광복절과 삼일절이 고 장의차는 ‘1945’다. 장재현 감독은 캐릭터와 장소, 이름, 소품에까지 뽀얏해서 우리의 무의식이 되게 장치할 만큼 간절했고 치밀하게 영화를 만들었다. 그는 오컬트 영화 속에서 진정한 해방을 그리고 있었다. 귀신은 무섭지 않다. 무서운 것은 세뇌된 사악한 이념이다.
 “아버지, 영화 무서웠어요?”

“귀신이 뭐가 무섭나? 우리나라 명산의 정상에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을 뽑아서 박살 내는 영화구만!” 핵심을 간파하신 아버지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전쟁이라고 하셨다.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 배고프고 제일 무서웠지.”
 아무리 무서운 영화도 그 당시 현실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말 한마디 했다고 서로 죽이는 시절이었고,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요즘 ‘파묘’에서 보여주는 ‘쇠말뚝’이 얼마나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가를 보여주는 일들이 영화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에게 좌과 운운하는 이념의 프레임은 씌우고, 삼일절에 대통령이 일본 우익들이 하는 말을 받아쓰듯이 하고,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앞서서 대응해야 할 공공기관 동북아역사재단이사는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 강요해선 안된다”는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사악한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영화까지... 이런 것들이 영화 속 과몰보다 더 끔찍한 이 시대의 쇠말뚝이 아닐까?

社說

‘5·18 평해 도태우 공천 유지’ 한 위원장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이 과거 5·18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구)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도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굉장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사과했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엄중사안인데도 4:10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공천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론을 수용하고 낮은 자세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전체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응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앞서 인천시의회 하석 의장은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 파장이 일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18 헌법 수록 불가능’ 발언을 했고,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북한군 개입설 등도 재차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이 5·18국립묘지에서 윤석열 대

통령의 대선 공약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적극 찬성했다.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 역사를 수호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성이 지금 의심받는 상황이다. 도 후보를 감싸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5·18 왜곡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강력한 재발 방지책도 아울러 제시해야 한다.
 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기념재단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5·18을 다시 한번 논박했다. 공천이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왜곡·평화를 뿌리 뽑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도 입장문을 내 “책임 회피성 사과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총선 예비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도 후보의 즉각 사퇴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초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헌법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5일 다시 방문해 정책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홍인화의 ‘5월이야기’



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얼마전 양림동 수피아 홀, 105주년 3·1운동을 기념하는 만세 재현 행사가 있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열기가 뜨거웠다. 수피아 동문들이 매년 관심을 갖고 참석했지만 올해 유독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해 더욱 뜻깊었다. 팔순이 넘는 1961년 졸업생 9회 백경숙선배님을 비롯해 13회, 14회, 19회 등 동문들이 칠순이 넘었는데도 부산과 서울에서 왔다. 한복과 두루마리를 입고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 선배들이 큰 일을 했어”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뉘면서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재현행사는 105년 전의 송고했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조국사랑, 인류평화로 전환하는 힘을 부여했다.
 1919년 3월10일 광주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수피아여학교 학생 전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919년 2월 중순, 1910년경 수피아 여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김마리아가 수피아 여학교에 들러 당시 교사로 있던 큰 언니 김합라에게 2·8독립선언서를 전해 줬기 때문이

3·1운동의 승고한 가치 잊어선 안돼

다. 또 교사 박애순이 학생들의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매일신보’의 기사를 읽어주고 “만국강화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독립이 승인됐으므로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있으니 우리도 운동을 개시해 대한독립만세를 불려야 한다”라고 설득했다. 그 장소가 수피아홀(등북문화재 제15호)이다. 1911년에 건축돼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다. 수피아 대강당 앞에는 1995년 수피아여중·고 총동창회가 건립한 ‘광주3·1만세운동’ 동상이 있다. 당시 육고를 치른 2명의 교사와 21명의 학생 명단이 있다. 필자가 2019년 ‘양림동사람들’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쓴 이유도 조국을 사랑하고 인류평화를 기원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광주 3·1운동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양림동 주민을 비롯해 수피아학생, 송일학생, 시민들과 더불어 수피아동창들이 많이 참석했다. 만세 운동 당시 태극기를 만든 수피아홀에서부터 치마저고리를 입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교복을 입은 학생 등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외쳤다.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수피아여고, 3·1만세운동길을 거쳐 시민 거리극, 만세삼창, 거리행진 등을 펼쳤다.
 광주에 터전을 잡은 고려인들도 지난 1일 광주 고려인 마을 일원에서 3·1만세 재현행

사를 했다. 3·1절과 1923년 연해주에서 열린 고려인 만세운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고려인문화관에서부터 흥범도 조각상이 있는 다묘아공원까지 고려인들과 마을주민들이 거리행진을 하며 “대한 독립 우라(만세)!”를 외쳤다. 고려인마을은 행사 참여자를 공개 모집했다. 경기도 인천에 사는 김영태 청년이 독립군 흥범도복장을 하고 거리행진 선두에 참여해 일본군 순사를 물리치는 역할을 했다. 고려인의 항일독립전쟁의 역사를 알리고 ‘대한독립군단 부속 광정단 소속’으로 고려인마을에 기부금 봉투도 전달했다.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공개모집한 참가자들이 그 의미와 뜻을 가리는데 함께 하기 위해 복장까지 준비한 모습에 감이 훈훈했다. 재일 디아스포라 화가 김석출씨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스러웠다. 올해는 1923년 연해주 우수리스크 거주 고려인동포들의 만세운동 101주년이기도 하다. 조국의 독립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고려인들도 해외에서도 갈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승고한 정신을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우리 민족 모두가 기억하고 계승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1운동의 승고한 이념과 가치가 쏙 빼놓아야 할 이유다.

독자투고



8개월 만에 3억 원, 19세 한 소년이 온라인 불법 도박에 중독돼 날린 금액이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사람의 권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서울경찰청과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이 도박 중독 청소년 76명을 대상으로 도박을 접하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모두가 나서야 할 때

에 따르면 지인 소개가 53%(42명)로 가장 큰 수치를 차지했다. 또한 경찰청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입하는 경로는 친구·지인이 알려진 경우가 67.6%로 압도적이다.
 실제로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이트는 대부분 도박 사이트 배너를 달고 미끼 사이트로 운영된다. 청소년 도박도 이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은 뇌에서 충동 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빠르고 반복적인 쾌락이 심한 도박 중독 단계로 이

어지기 쉽다. 또한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약 배달, 고금리 사채까지 손을 대는 등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이나 전문 기관의 상담 치료, 예방 교육 등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은 반드시 우리가 근절해야 할 과제이다.
 <최혜나·장흥경찰서 청문조사인권계>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18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만9천652건이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3천37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3천269명이다. 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발생 건수는 경기(1만6천812건) 서울(7천563건)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수치다.

어린이 교통안전,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약속

어린이 교통사고 중 70%는 보행 중에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의 사고율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 중에서는 저학년의 사고율이 가장 높았다. 사고 시간대는 오후 4-6시에 사상자가 가장 많아 하고 시간대 저학년의 보행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일시

정지의무를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한 운전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습관과 교통법규 준수를 약속하자.
 <김청화·순천경찰서 별파파출소>

글로벌대학30 도전한 광주 사립대 연합 성과 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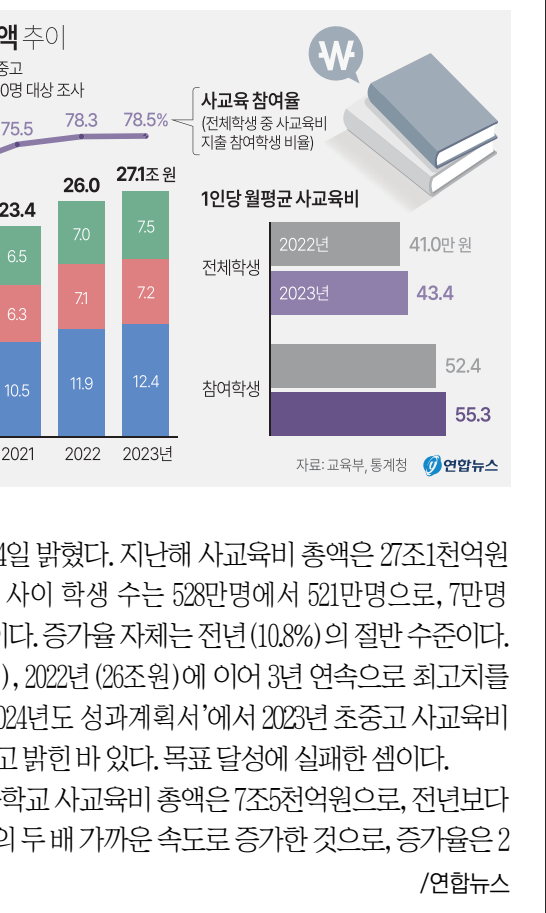
교육부가 2024 글로벌대학 혁신기획서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 4월 중 전국적으로 예비 지정 15-20곳 내외를 발표할 예정이다. 첫 해인 지난해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가 예비대학에는 올랐으나 본지점에서 최종 탈락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조선대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송원대 등 광주지역 5곳 사립대가 연합 형태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선8기 광주 대표 산업과 연계해 취·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선대는 같은 법인 내 조선간호대와 조선이공대와 통합도 기획서에 담는다. 5곳 대학과 2곳 조선대 계열 대학의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4만8천여명으로, 규모 면에서 매머드급이다.
 교육부 역점 사업인 글로벌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허브이자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2023년에 이어 2024

년 각 10개 내외, 2025년과 2026년 각 5개 내외로 모두 30곳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순천대는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3개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정원의 70%를 배정, 수요에 대응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며 강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대학은 학교당 5년간 최대 1천억원의 지원을 받으며, 각종 규제와 혁신을 우선 적용하고, 법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지방대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성화대학 지정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기존 단독, 통합 신청에 추가로 연합 형태로도 가능하도록 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5곳 사립대가 생존을 위한 연합체를 구성했다. 공동 거버넌스로 대응하며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며 거듭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들 대학이 예비지정 첫 관문부터 통과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 뉴스

‘킬러문항·의대쏠림’에 작년 사교육비 27조 쪼뼛다...3년연속 최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섰다. ‘의대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천만명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천억원)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4천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치를 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의 두 배 가까이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편집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두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